

의과대학생 성격과 학업성취도 비교를 통한 교육방법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¹

김 선 · 김주현¹ · 허에라

= Abstract =

A Proposal on Educational Method of Studying by Comparing Medical Students' Personality Types and Class Achievement

Sun Kim, PhD, Joo-Hyun Kim¹, PhD, Yera Hur, MA

Department of Medical Education, College of Medicin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Korea

Department of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Seoul, Korea¹

Purpose: This study set its goals on determining 1) medical students' personality types, 2) the correlation between medical students' personality types and their satisfaction in medical school, 3) the correlation between medical students' personality types and class achievements, 4) the correlation between medical students' satisfaction in medical school and class achievements and 5) a proposition for using the results to benefit medical education.

Methods: The study used the Korean version of Myers-Briggs Type Indicator (MBTI) GS form. This inventory was administered to the medical students during their orientation at the beginning of the first year of medical school. A total of 245 first year students in the years 2002 and 2003 completed the inventory. The study used the windows version of SPSS 11.0 statistics program.

Results: The noticeable majority of medical students were introverted (68.2%) - Sensing (68.6%) - Thinking (71.4%) - Judgers (60.0%). Comparing personality types with satisfaction in medical school and satisfaction in medical school with class achievements showed no significant correlation. There was, however, a significant difference seen in comparing personality types with students' achievements. Judging-type students showed higher class achievements (3.2) than perceptive-type (2.7), and SJ types showed higher class achievements (3.3) than SP types (2.6).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consistent with previous studies done using Korean college students as subjects. And as the ISTJ type is appropriate for jobs related to medical care, the majority of medical students seem to have found their adequate career path. Implications for teaching and learning strategies, and for using the results of MBTI in medical students' career planning are discussed.

Key Words: MBTI, Personality types, Satisfaction in medical school, Class achievements, Correlation

교신저자: 허에라,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과,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505번지
Tel: 02)590-4989, Fax: 02)591-7185, E-mail: shua@catholic.ac.kr

서 론

인간을 이해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MBTI (Myers-Briggs Type Indicator) 검사는 모너지간인 Catherine C. Briggs와 Isabel Briggs Myers가 개발한 검사로 그 개발 기간만 해도 1900년부터 75년이라는 시간을 할애하여 완성된 검사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에 도입되어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MBTI는 다양한 성격유형을 통해 인간에 대한 이해하는 방법이다. Catherine과 Isabel은 C. G. Jung의 성격유형을 근거로 한 95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성격유형지표 (Type Indicator)를 만들었다. 성격유형지표는 크게 외향성과 내향성, 감각과 직관, 사고와 감정, 판단과 인식 지표로 나누어져 개인이 선호하는 지표에 따라서 크게 4가지 선호경향과 16가지 성격유형이 나타날 수 있다 (김정택, 심혜숙, 1987). 4가지 선호경향이란 인간에게 잠재되어 있는 선천적인 심리경향으로 에너지의 방향은 어느 쪽이냐에 따라 외향 (Extraversion) 또는 내향 (Introversion), 무엇을 인식하느냐에 따라 감각 (Sensing) 또는 직관 (Intuition),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사고 (Thinking) 또는 감정 (Feeling), 채택하는 생활양식은 무엇이냐에 따라 판단 (Judging) 또는 인식 (Perceiving) 형으로 나누어진다. 16가지 성격유형은 이 4가지 선호지표가 조합되어 만들어지는 것으로 ISTJ, ISFJ, INFJ, INTJ, ISTP, ISFP, INFP, INTP, ESTP, ESFP, ENFP, ENTP, ESTJ, ESFJ, ENFJ, ENTJ 유형으로 구분된다.

ISTJ는 사실과 세부사항을 분석적으로 처리하는 자로 내향성 감각형이고 ISFJ는 사실과 세부사항을 동정적으로 처리하는 내향성 감각형, INFJ는 전체적인 부분을 조합하여 비전을 제시하는 성격유형, INTJ는 비판적이고 혁신적인 내향성 직관형이다. 실제적인 분석가인 ISTP는 논리적이고 뛰어난 상황 적응력을 가진 백과사전형, ISFP는 주의 깊고 충성스런 성인군자형, INFP는 상상적이고 독립적인 유형, INTP는 탐구적인 분석을 하는 내향성 사고형이다. ESTP 유형은 현실적 적응형, ESFP는 사교적이고 우호적인 유형, ENFP는 열정적인 외향성 직관

형, ENTP는 분석적인 발명가형, ESTJ 유형은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사업가형이다. ESFJ는 친선도모형으로 타인에게 봉사하는 사람들이며 ENFJ는 상상력이 풍부한 언변능숙형 그리고 ENTJ 유형은 직관적, 혁신적, 조직적인 지도자형이다 (김 선, 1999; 나길운, 1992; 최광수, 2002). 이 중 의료관련 직업에 적합한 유형은 ISTJ, ISFJ, ISFP, ESFP, ESFJ 그리고 4가지 기능유형 중에서는 SF와 치료와 상담 분야가 적합한 NF 유형이 여기에 속한다 (박기출, 1996; 이경화, 1999).

MBTI 검사는 상담이나, 연구 또는 다양한 조직안에서도 활용될 수 있으며 특히 교육현장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학습자들의 MBTI의 유형을 알게 되면 교수자는 그 결과를 통해 성격유형에 맞는 효율적인 교수방법을 고안해 낼 수 있고 학습자 개인을 지도할 때에는 학습자의 성격유형에 맞는 학습방법을 적용하고 학습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4가지 선호지표의 특징을 분석하여 학습자의 진로지도에도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다 (Stilwell et al, 2000; Grandy et al, 1996). 현재까지 국내·외로 수많은 MBTI관련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는데, 의학, 치의학, 간호학 관련 MBTI 연구는 외국학술논문의 경우 PubMed를 검색한 결과¹⁾ 70편의 논문 (Boyd & Brown, 2005; Clack GB et al, 2004; Opt & Loffredo, 2003; Shope et al, 2000; Harasym et al, 1995; Blake et al, 1995; Eicke et al, 1993; Lacorte & Risucci, 1993; Tharp, 1992, Freund, 1988, Erskine et al, 1986; Williams, 1975 등)을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의과대학생과 관련된 MBTI 연구는 7편 (Bitran et al, 2004a; Bitran et al, 2004b; Sohn & Jo, 2003; Bitran et al, 2003; Ang, 2002; Stilwell et al, 2000; Wallick et al, 2000; Wallick & Cambre, 1999)에 불과하였다. 국내학술논문은 국내의학논문을 검색할 수 있는 Kbase 검색엔진을 이용하였는데, 그 결과 총 23편의 논문을 찾아볼 수 있었다 (양수 외, 2004; 황승숙, 2004; 김희숙, 2003; 황승숙, 김은주, 2002; 박정희, 2002; 임기영, 조선미, 2002;

1) 검색어: "MBTI"

권윤희, 김정남, 2002; 김지혜 외, 2001; 박금숙 외, 2001; 임지영 외, 2001; 이정태 외, 1995 등)2). 그러나 이 중 의과대학생과 관련된 논문은 3편(김인숙, 김귀분, 2002; 임지영, 조선미, 2002; 이정태 외, 1995)에 불과하였고 이 중에서 학업성취도나 전공만족도와 성격유형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한국의학교육학회지에 발표된 김 선(1999)의 논문이 있다. 1999년의 연구는 의과대학생의 성격과 학업만족도 그리고 학업성취도간의 관련성을 연구하였는데 본과 1학년에서 4학년 학생을 각 학년별로 80명씩 무선 할당하여 MBTI 검사를 1회 실시하였다. 동일한 의과대학에서 실시한 본 연구가 이 전의 연구와 다른 점은 첫째, 연구의 대상이 본과 1학년 의과대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2002년과 2003년도에 각각 실시한 2번의 검사 결과를 토대로 학업만족도와 학업성취도와의 관계를 분석했다는 점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MBTI의 기능별 특징을 분석하는 단계와 입학년도에 따른 성격유형 분포의 차이를 살펴보는 과정을 추가하였다. 셋째, 단순히 학업만족도와 학업성취도 그리고 성격유형과의 관계 분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과대학생들의 성격유형 검사 결과를 한국심리검사연구에서 실시한 한국인의 성격유형 분포비율과 비교해보고, MBTI의 4가지 기능형의 결과를 통해 의료관련 직업에 적합한 유형은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았다. 이러한 추가적인 작업과 더불어 MBTI 유형의 4가지 선호경향을 분석하여 각 유형에 적절한 교수-학습방법을 제시하고, 더 나아가 의과대학생들이 MBTI 분석 결과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또한 모색해보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가. 연구대상

연구대상자는 2002년과 2003년도에 A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1학년으로 진입하여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한 의과대학생 245명이다. 2002년도에는 125명, 2003년도에는 120명의 학생들이 의과대학 진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였다. 남녀의 비율은 남학생의 경우 160명, 여학생의 경우 85명으로 남학생의 수가 여학생 수의 약 2배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 과정 중에 MBTI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2002년과 2003년 2년간에 걸쳐 실시한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한 245명의 학생 전원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나. 연구방법 및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도구는 Catherine C. Briggs와 Isabel Briggs Myers가 개발한 MBTI 검사를 한국심리검사연구소에서 번역한 MBTI 성격유형 검사 GS형이다. MBTI GS형의 질문지에는 총 9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부로 나누어져 있고 총 45분 가량의 시간이 소요되는 검사지이다. 제 1부는 30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문제에서 주어지는 상황에 따라 자신에게 자연스럽게, 습관처럼 편안하게 느껴지고 자주 행동하는 경향과 가까운 것을 고르는 문항들이며, 제2부에서는 주어진 상황뿐만 아니라 2개의 낱말 중에서 자신에게 더 가깝다고 생각되는 말을 선택하게 구성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자신의 전공에 대해 만족여부를 ‘그렇다’, ‘아니다’ 중 선택하는 문항이 있다. MBTI 검사지에는 질문지와 함께 답안용지(자기채점식)와 MBTI 프로파일도 포함되어 있다. 연구대상자들은 답안용지에만 기록하게 하였으며 기록된 답안지는 회수하여 2명의 훈련된 조교가 점수를 환산하고 프로파일을 작성하였다. 학업성취도의 측정은 의학과 1학년의 학년말 성적을 활용하였는데, 이 성적은 의학과 1년 간 학습하였던 8개 과목 성적의 평균점수이며 총점 4.3을 만점으로 하는 수치이다. 따라서, 전공만족도와 학업성취도의 경우 2002학년도 진입생들의 자료만을 구할 수 있었음을 밝혀둔다.

MBTI는 결과는 Microsoft EXCEL 2000을 통해 정리되었다. MBTI 검사는 2002년과 2003년 동일한 방법으로 실행하였고 결과 또한 동일한 방법으로 정리되었다. 정리된 결과는 windows용 SPSS 11.0

2) 검색어: “MBTI,” “성격유형”

Table I. Frequency of Personality Types

Personality type	Frequency (%)	Personality type	Frequency (%)
E	78 (31.8)	ST	124 (50.6)
I	167 (68.2)	SF	44 (18.0)
S	168 (68.6)	NF	25 (10.2)
N	77 (31.4)	NT	52 (21.2)
T	175 (71.4)	SJ	112 (45.7)
F	70 (28.6)	SP	56 (22.9)
J	147 (60.0)		
P	98 (40.0)		

Table II. 16 Personality Types of Medical Students Frequency (%)

EI	JP	SN		Sensing (S)		Intuition (N)	
		TF	Thinking (T)	Feeling (F)	Thinking (T)	Feeling (F)	
Introvert (I)	Judging (J)	ISTJ	71 (29.0)	ISFJ	8 (3.3)	INTJ	16 (6.5)
	Perceiving (P)	ISTP	19 (7.8)	ISFP	15 (6.1)	INTP	18 (7.3)
Extrovert (E)	Judging (J)	ESTJ	27 (11.0)	ESFJ	6 (2.4)	ENTJ	11 (4.5)
	Perceiving (P)	ESTP	7 (2.9)	ESFP	15 (6.1)	ENTP	7 (2.9)

프로그램을 통해 의과대학생들의 성격유형 분포와 전공만족도와의 관계, 성격유형과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그리고 전공만족도와 학업성취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결 과

가. 의과대학생들의 성격유형

의과대학생들의 성격유형의 분포를 MBTI 유형으로 분석한 결과, 먼저 각 지표별 선호경향을 살펴보면 Table I에서와 같이, 태도지표 (E/I)에서는 내향성 (I)이 68.2%로 외향성 (E)보다 더 높은 분포를 보였고, 인식과정 (S/N)에서는 감각형이 68.6%로 직관형 (N)에 비해 더 높은 분포를 보였다. 판단과정 (T/F)

은 사고형 (T)이 71.4%로 감정형 (F)에 비해 가장 많은 차이를 보였으며, 대처양식(J/P)에서는 판단형(J)이 60.0%로 인식형 (P)보다 더 높은 분포를 보였다. 김 선 (1999)의 연구결과와 비교해 보면 빈도 (%)의 차이는 있었으나 이 연구의 지표별 성격유형 역시 I (68.5%), S (74.5%), T (68.5%), J(55.4)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MBTI의 기능별 특징은 인식과정 (S/N)과 판단과정 (T/F)의 배합에 따라 ST, SF, NF, NT의 4가지 기능으로 구분되는데, 의과대학생들의 기능유형을 살펴보면, Table I에서와 같이, ST형이 50.6%로 반 이상을 차지하여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고, NT형 (21.2%), SF형 (18.0%), NF형 (10.2%)의 순으로 높은 분포를 보였다. 그리고 보다 가시적인

Table III. Correlation of Satisfaction in Major and Personality Type

Personality type	Satisfied	Dissatisfied	χ^2	p
E	15 (39.5)	23 (60.5)	.261	.609
I	36 (44.4)	45 (55.6)		
S	37 (44.4)	47 (56.0)	.165	.684
N	14 (40.0)	21 (60.0)		
T	36 (43.9)	46 (56.1)	.118	.732
F	15 (40.5)	22 (59.5)		
J	31 (44.9)	38 (55.1)	.237	.592
P	20 (40.6)	30 (60.0)		
SJ	23 (46.0)	27 (54.0)	.677	.879
SP	14 (41.2)	20 (58.8)		
NF	6 (46.2)	7 (53.8)		
NT	8 (53.8)	14 (63.6)		
ST	28 (46.7)	32 (53.3)	1.073	.784
SF	9 (37.5)	15 (62.5)		
NF	6 (46.2)	7 (53.8)		
NT	8 (53.8)	14 (63.6)		

행동패턴을 보여주는 기질은 인식과정 (S/N), 판단과정 (T/F), 대처양식 (J/P)의 배합에 따라, SJ, SP, NF, NT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의과대학생들의 기질유형을 살펴보면, SJ형이 45.7%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고, SP형 (22.9%), NT형 (21.2%), NF형 (10.2%)의 순으로 높은 분포를 보였다.

또한 MBTI의 4가지 지표별 선호경향을 조합한 16가지 성격유형의 분포를 살펴보면 Table II에서와 같이, 실제와 사실에 대해 정확하고 체계적이며 신중한 ISTJ 유형이 29.0%로 가장 높았고, 이 외에 10% 이상의 분포를 보인 유형은 ESTJ (11.0%)로 나타났다. ENFJ유형은 0.8%로 16가지 유형 중 가장 낮은 분포를 보였다. 연구대상은 다르지만 김 선의 1999년도의 연구와 비교해 보면, ISTJ 유형이 22.4%로 1위, ESTJ 유형이 11.6%로 2위로 동일한 결과를 보였고 가장 낮은 분포를 보인 유형은 각각 1.9%를 차지한 INFJ, ENFJ, ENTJ 유형이었다.

다음은 의과대학생들의 입학년도에 따른 성격유형 분포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2002년 입학생과 2003년 입학생의 성격유형 분포는 각 지표별 선호경향에서나 기능유형 및 외부세계의 대

처양식을 조합한 기질유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의과대학생들의 성별에 따른 성격유형 분포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성별에 따른 성격유형의 분포 역시 각 지표별 선호경향에서나 기능유형 및 외부세계의 대처양식을 조합한 기질유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나. 의과대학생들의 성격유형과 전공만족도와와의 관계

의과대학생들의 성격유형과 전공만족도와와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성격유형을 지표별, 기능별, 기질별로 구분하여 전공만족 여부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Table III과 같다. 먼저 성격유형의 지표별로 전공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지표별, 기능별, 기질별 전공에 대해 만족 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모든 지표별 성향의 의과대학생들은 만족하는 경향이 그렇지 못한 경향에 비해 비교적 낮았으며, 모든 기능 및 기질별로도 같은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의과대학생의 성격유형과 전공만족도와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IV. Correlation of Class Achievements and Personality Types

Personality type	N	Mean	SD	F	p
E	38	2.995	.610	.034	.855
I	81	2.969	.771		
S	84	3.011	.703	.619	.433
N	35	2.896	.767		
T	82	3.046	.705	2.419	.123
F	37	2.825	.743		
J	69	3.207	.608	19.387	.000
P	50	2.659	.749		
SJ	50	3.266	.008	6.112	.001 (SP < SJ)
SP	34	2.636	.126		
NF	13	2.835	.228		
NT	22	2.933	.160		
ST	60	3.087	.689	1.045	.376
SF	24	2.820	.715		
NF	22	2.933	.749		
NT	13	2.835	.823		

한편, t 검증 분석을 사용한 김 선(1999)의 연구 결과에서는 외향적(E)인 성격을 지닌 학생의 학업만족도(M=162.0)가 내향적(I)인 성격을 지닌 학생의 학업만족도(M=150.7)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해 양식 및 생활 양식에 있어, 판단형(J)이 인식형(P) 학생의 학업만족도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보수집 및 판단과 결정지표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상이한 연구결과들은 연구대상에서의 차이가 있음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다. 의과대학생들의 성격유형과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의과대학생들의 성격유형과 학업성취도와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성격유형을 지표별, 기능별, 기질별로 구분하여 평량평균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Table IV와 같다. 먼저 성격유형의 지표별로 학업성취도를 분석한 결과, 태도지표(EI)에서는 외향성(E)이 내향성(I)보다 더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고, 인식과정(S/N)에서

는 감각형(S)이 직관형(N)에 비해 더 높았으나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판단과정에서는 사고형(T)이 감정형(F)보다 더 높았으나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대처양식(J/P)에서는 판단형(J)이 인식형(P)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선(1999)의 연구결과에서는 판단과정(T/F)에서 사고형(T)의 학업성취도(M=78.45)가 감정형(F)의 학업성취도(M=75.2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을 뿐 나머지 지표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격의 기능유형에서는 ST형이 학업성취도가 가장 높고, SF형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으나 이들 유형 집단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성격의 기질유형에서는 유형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구체적으로 SJ형이 SP형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성격유형과 학업성취도와의 관계에서는 선호경향의 지표 중 J형의 성격유형을 가진 의과대학생들이 P형의 성격유형을 가진 의과대학생들보다 학업성취도가 유의미하게 더 높

Table V. Correlation of Class Achievement and Satisfaction in Medical School

Satisfaction level in medical school	N	Mean	SD	F	p
Satisfied	51	3.063	.660	1.266	.263
Dissatisfied	68	2.913	.762		

왔고, 성격의 기질유형에서는 SJ형의 의과대학생들이 SP형의 의과대학생들보다 학업성취도가 유의하게 더 높았으며, 성격의 기능유형은 ST형 의과대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라. 의과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와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의과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와 학업성취도와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전공만족 여부에 따른 평량 평균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Table V와 같다. 전공에 대해 만족하는 의과대학생들이 불만족하는 학생들에 비해 더 높은 평량평균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고 찰

본 연구의 대상이었던 의과대학생들의 성격유형을 MBTI로 분석한 결과 중 각 지표별 선호경향을 살펴보았을 때 내향성이 외향성보다, 감각형이 직관형보다, 사고형이 감정형보다 판단형이 인식형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한국 대학생 성격유형의 분포를 제시한 김정택, 심혜숙(1990)의 MBTI의 유형 분석에서도 내향성이 56.35%로 외향성보다 더 높았으며, 감각형이 73.21%로 직관형보다 높았으며, 사고형이 56.84%로 감정형보다 높았고, 판단형이 54.82%로 인식형보다 더 높았던 것과 같은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의과대학생의 기능유형의 분포에서는 ST형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뒤 이어 NT형, SF형, NF형의 순으로 나타났다. 4가지 기능 중 의료 분야에 가장 적합한 기능은 SF형과 NF형(Myers & McCaulley,

1985)으로, SF형은 가족적이고, 열성적인 특성으로서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것을 바탕으로 개인적, 사회관계적 측면으로 판단하고 사람들의 관심사를 접하는 일을 선호하는 특징을 보이고, NF형은 유기적이고 열정적인 특성으로서 전망이나 가능성에 입각하여 인간중심적 가치에 의해 판단하고 사람들의 열망을 이해하는 일을 선호하는 특징을 보인다(김상용, 김현숙, 1999). 그러나 본 연구 대상의 경우, 의료 분야에 적합한 기능유형인 SF형과 NF형의 유형이 비교적 낮은 비율임을 알 수 있다.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인 ST형은 관료적이고 실제적인 특성으로서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것에 대해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며, 사실과 경험을 적용하는 일을 선호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와 같이 의과대학 진입생의 성격이 사람들에게 대한 관심과 이해가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의과대학생의 기질분포에서는 SJ형이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고 SP형, NT형, NF형의 순으로 높은 분포를 보였다. 한국 대학생 성격유형의 분포를 제시한 김정택, 심혜숙(1990)의 MBTI의 유형 분석에서도 SJ형이 44.41%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고, SP형이 다음 순이었던 점과 일치하고 있다. 4가지 기질 중 SJ형은 ‘보호자’의 기질을 보이는 것으로 소속과 봉사를 중시하며 사회에 도움이 되기를 원하고 의무수행의 욕구가 있으며, 전통을 고수하며 변화를 즐기지 않는 특징을 보인다(김상용, 김현숙, 1999). 이에 따르면 소속과 봉사를 중시하고 사회에 도움이 되기를 원한다는 면에서 의료 분야가 어느 정도 적합한 기질이라고 할 수 있다.

MBTI의 4가지 지표별 선호경향을 조합한 16가지 성격유형의 분포를 살펴보았을 때, 의과대학생들에게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난 유형은 ISTJ 유형이

었다. 이는 한국 대학생 성격유형의 분포를 제시한 김정택, 심해숙(1990)의 MBTI의 유형 분석에서 ISTJ유형이 19.03%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인 것과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의과대학 1학년에서 4학년 학생을 각 학년별로 80명씩 무선 할당하여 연구한 김 선(1999)의 연구 결과를 보아도 가장 많은 유형(22.4%)으로 나타났다. ISTJ 유형에 알맞은 직업으로는 회계, 법률, 생산, 건축, 의료, 사무직, 관리직이므로 본 연구의 의과대학생들 중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인 성격유형이 의료분야에 적합한 분포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성격유형과 학업성취도와의 관계를 보면, 성격유형의 지표별로 학업성취도를 분석한 결과, 대처양식에서 판단형(J)이 인식형(P)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성격의 기질유형에서 SJ형이 SP형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을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신속하게 처리하고, 자기통제적인 성격유형인 J형, SJ형이, 너무 많은 일을 두서 없이 한꺼번에 시작해서 하나의 일을 끝내는데 어려워하고 자신이 선호하지 않는 일은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는 P형이나 SP형보다 학업성취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Anchors et al, 1989; Myers & Myers, 1980; 임지영 외, 2001)와 일치한다.

MBTI의 결과는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데 의료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도 예외는 아니다. 다양한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할 수 없는 의료전문직의 경우 MBTI의 결과를 잘 활용하면 직장 동료뿐만 아니라 환자와의 의사소통, 개인 또는 집단 의사결정, 협동이 필요한 다양한 활동 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Clack et al, 2004; Opt & Loffredo, 2003; Ang, 2002; Shope et al, 2000). 질병이 보다 세분화되고 복잡해지며 수많은 의료정보를 효율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의사들에게 있어 의료에서 협력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좋은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성향으로 사고하는 동료들의 도움도 필요할 것이다. Makely (2005)도 지적했듯이 성격유형은 사람들이 상황을 다루는 방법,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 그리고 문제나 일에 접근하는 방법에도 영

향을 준다.

MBTI의 결과는 학생들과 교수들의 상담 자료로 활용하기에도 매우 유용하다. MBTI의 역사를 살펴 보아도 MBTI는 의과대학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1950년대에 George Washington 의과대학에서 의과대학생 5,355명이 참여하는 12년간의 MBTI 연구가 실시된 적이 있었다(http://www.capt.org/The_MBTI_Instrument/Isabel%20Myers.cfm). 이 연구를 통해 의과대학생들의 성격유형에 따른 전공 선택 여부와 12년 후에 선택한 전공이 자신의 성격유형에 적절하였는지의 여부를 알 수 있었다.

MBTI의 검사 결과는 교수-학습방법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Hardigan & Cohen (2003)은 7개의 의료전문직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성격유형을 분석하였는데, 분석 결과 서로의 성격유형에 차이가 있었고 특정 직종에 특정 성격유형들이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의과대학생과 치과대학생은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ESTJ 유형,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전공의 경우 따듯한 마음과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ESFJ 유형 그리고 약학대학생들의 경우 신중하고 철저한 ISTJ 유형이 가장 많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교수자는 학습내용의 선정이나 학습방법을 결정할 때에 학습대상에 따라 강의 위주의 교수방법, 소그룹 활동, 학생발표, 문제바탕학습방법, 역할극, 현장학습, 프로젝트 수업 등 다양한 학습방법과 내용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생들의 성격유형에 적절한 학습방법과 내용을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학생들의 성격유형 분석을 통해 취약한 부분을 보충하고 강화해 줄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을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Brightman의 경우 MBTI 유형에 따른 학습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본 연구 결과에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인 의과대학생들의 성격유형별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학습방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³⁾

본 연구에서 가장 많은 의과대학생들의 성격유형은 ISTJ 즉, 내향적-감각적-사고적-판단자들이었다.

3) 자료출처;

<http://www.gsu.edu/~dschjb/www.mbti.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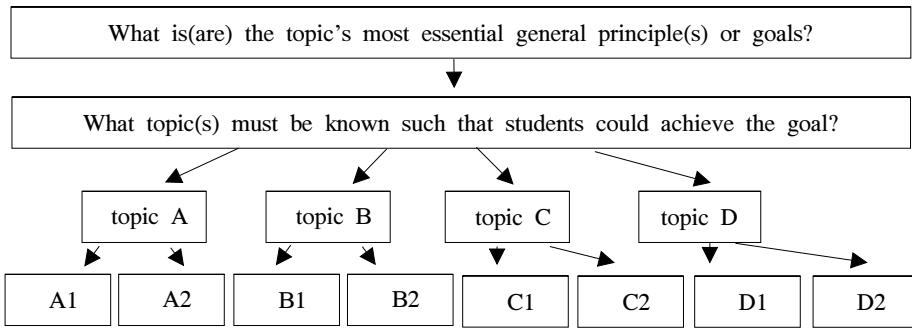


Fig. 1. What must be known method.

태도지표에서는 내향성 (I)이 외향성 (E)보다 더 높은 분포를 보였다 (68.2%). 태도지표는 학습자가 어떻게 “에너지를 충전하는지”를 알 수 있는 지표로, 내향성 (I)의 경우 집중력이 강하고 반성적 사고를 좋아하는 목표지향적인 학습유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습주제에 대한 학습 틀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다. 지식을 조각내어 가르치는 것은 내향성 학습자에게는 의미가 없다. 교수자는 학습자가 “큰 그림”을 볼 수 있도록 학습내용간의 연관성을 보여줘야 한다. 비슷한 학습내용들을 묶고 그룹화시키고 상호연관짓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이 직접 비교나 대조표를 작성하거나 흐름도나 개념지도 (concept map)를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한다.

인식과정에서는 직관적 (N) 유형보다 감각적 (S) 유형의 학생들이 많았다 (68.6%). 감각적 유형의 학습자는 조직적이고 구조화된 순차적인 강의를 선호한다. 조직적인 강의를 하기 위해서 1)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하고, 2) 적용-이론-적용 전략 그리고 3) 선행조직자를 사용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조직화하기 위해서는 Fig. 1과 같은 방법으로 교수자 스스로 질문을 해가며 학습목표를 정리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 수업에 적용할 때에는 하위 단계부터 가장 상위의 목표를 향해 역으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수업을 전개한다.

감각적인 학습자들은 “내가 왜 이것을 공부하고 있지?”라는 질문을 하기 때문에 이론을 배우기 전에 이론과 관련된 학습자들에게 친숙한 사례나 문제를 먼저 제시하여 학습동기를 유발시키는 것이 바람직

하다. 이때의 문제나 사례는 학습자들이 접근하기 쉬운 것이어야 하며 궁극증을 유발시키고 조금은 도전적인 내용으로 선택하고 선수 학습한 내용이나 경험을 통해 해결 가능한 것이 좋다. 선 적용 과정을 거친 후 관련 이론이나 개념을 학습하고 추가의 적용사례나 문제를 다시 접목시키면 학습내용의 습득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선행조직자는 항구의 배와 비교한다면, 비계 (scaffolding)를 형성하여 학습자들이 학습내용에 닿을 내릴 수 있도록 해준다. 즉, 기존지식의 내용과 연결되어 이미 형성된 지식에 새로운 지식을 잘 접목시켜 친숙하지 않은 개념이나 학습주제를 보다 친숙하고 명확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선행조직자를 선택하는 데에 교수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질문이 있다. 1) 학습해야 할 주제와 매우 비슷한 내용 중 학습자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수준의 지식은 무엇인가? 2) 이미 알고 있는 지식과 새로이 학습해야 할 내용과의 연관성을 어떠한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판단과정에서 사고적 (T) 성향을 가진 의과대학생은 71.4%나 되었다. 사고적 성향의 학습자들은 명확한 학습목표와 학습과정을 선호하므로 학습목표나 일일 수업목표에 불명확하고 모호한 단어의 사용은 피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교수자는 의미 있고 통합적이며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다지능 수준의 명확하고 행동중심적인 학습목표를 제시하도록 한다.

대처양식에서 판단형 (J) 의과대학생의 분포는 60%였는데 판단형 학습자들은 단호하고 계획적이기 때

문에 학습과제를 완수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핵심과 요점만을 알고 싶어하며 판단에 따른 행동을 매우 빠르게 실천한다. 이들은 자신들의 학업과정을 계획하기를 좋아하고 마감일을 엄격히 지키는 편이기 때문에 이들의 좌우명은 “무조건 하라”이다. 판단형 학습자들의 효과적 학습을 돕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학습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 1) 속기: 속기는 쉽게 배울 수 있고 학습자들 자신만의 방법을 개발할 수도 있다. 2) 다단 나누어 필기하기: 노트 필기 시에 지면을 절반으로 나누어 왼쪽 면에는 강의 내용을 정리하고, 수업 후 오른 편에 자신의 언어로 왼쪽에 적은 내용에 대한 자신의 의견, 의문점, 핵심 내용, 선수학습과정의 연계성과 내용의 의미 등을 기록한다. 3) 색연필 사용하기: 노트나 교재에 파랑색은 주요핵심 용어를 표시하는 색으로, 녹색은 선수학습과 연계되는 내용을 표시하는 등 색상을 이용하는 학습방법도 효과적이다. 4) 분석-조직-반응: 어떠한 문제에 응답하기 전에 먼저 문제를 분석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다. 핵심 용어를 파악하고 논리적인 순서로 생각을 조직화 한 후에 응답하도록 한다. 5) 거꾸로 질문해보기: 시험 시 장문의 답이나 논술문을 작성해야 할 경우, 먼저 자신이 진술한 답의 내용을 읽어본다. 그 다음 자신이 쓴 내용을 바탕으로 거꾸로 시험문제를 만들어 본다. 답을 토대로 만들어진 문제와 본 시험 문제와 비교하여 차이가 없는지 확인한다. 판단형 학습자들은 선부른 분석을 하여 사례분석이나 문제해결 시 성급한 답변을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문제바탕학습과 같은 사례를 다루는 학습을 할 경우 학습자들은 결과 내용을 다시 검토하거나, 교수자가 다른 해답과 문제해결방법을 제시하는 집단을 구성하여 서로 찬반논의를 통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해 보는 방법도 바람직하다.

위와 같은 학습전략을 대규모 강의와 같은 상황에서는 학습전략 내용을 참조할 수 있겠으나 모든 의과대학생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ISTJ 유형이 많다고는 하나 다른 학습유형을 가진 학생들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 제시하는 학습전략은 조별활동이나 개

별과제 또는 소규모 그룹학습 시에 학습자들의 집단배치나 조별구성을 학습자들의 성격유형을 고려하여 조직화한다면 보다 용이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MBTI 결과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의과대학생들의 전공 선택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임기영, 조선미, 2002; 이경화, 1999; Molidor, 2002; Stilwell et al, 2000; Grandy et al, 1996). Isabel Briggs Myers의 중단연구 외에도 의학전공영역의 선택과 MBTI에 관한 연구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데 Michigan State University 의과대학의 경우 이러한 MBTI 연구 결과를 정리하여 학생들의 진로선택에 유용한 자료로 제공하고 있다(Molidor, 2002). 오랜 연구결과를 통해 얻은 결론은 MBTI의 모든 성격유형이 모든 의학 전공영역에 분포해 있으므로 의학은 모든 성격유형의 소유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학문이며 직업이다. 그러나 SP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유형에 비해 그 수가 적다고 밝혀졌다. 이 연구결과와 일부를 살펴보면, 내과와 신경과의 경우 IN 유형, 외과는 ES 유형, 일반외과와 정형외과 그리고 산부인과는 끈은 성격과 하이테크에 관심이 있는 S 유형, 정신과는 N 유형, 마취과의 경우 ISTP와 ISFP 유형, 병리학의 경우 INT 유형, 소아과의 경우 마음이 따뜻한 ESFJ와 ISFJ 유형 그리고 의과대학의 교수들의 경우 ENFJ와 INFJ 유형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차의료의 경우 I 유형과 F 유형이 선호하는데, 그 중에서 F 유형이 가정의학을 많이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를 대하는 데에 있어서 S 유형은 자신에게 익숙한 활동을 매일 적용하기를 좋아하고, N 유형의 경우 복잡하고 도전적이며 새로운 것을 추구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정신과를 많이 선호하는 것이며, T 유형은 달성해야 할 목표가 있고 어려운 과제가 동반되는 환자진료를 선호한다. 그리고 F 유형의 경우 열정과 돌봄이 필요한 환자들을 대하기 좋아하므로 소아과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성격유형이 모든 전공영역에서 발견되고 있지만, 각 성격유형이 가지고 있는 기질적 특성 중 장점이 잘 적용되고 활용될 수 있는 세부전공을 고려

하여 선택한다면 학생들에게는 전공에 대한 만족과 학업에 대한 열정이 높아질 수 있으며, 전문의들에게는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과 수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의과대학생에 대한 추후연구의 방향과 적용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본 연구는 1개 대학의 의학과 1학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의과대학생의 일반적인 성격유형으로 일반화하는 데 제한점이 있으므로 반복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성격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교수-학습전략 개발을 위한 연구가 후속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 의과대학생들의 성격유형과 추후 전공 선택의 결과를 비교 분석하는 장기적인 종단연구도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권윤희, 김정남(2002). MBTI를 활용한 성장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 및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효과. *지역사회간호학회지*, 13(2), 216-229.

김상용, 김현숙(1999). 최근 4년간의 신입생 성격유형(MBTI) 결과 비교 분석 - 1996학년-1999학년도 -. *학생지도연구: 부산교육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19, 37-62.

김 선(1999). 의과대학생의 성격과 학업만족도 및 학업성취도간의 관련성 연구. *한국의학교육*, 11(2), 271-284.

김정택, 심혜숙(1987). *MBTI 16가지 성격유형 - 성격 선호도 검사* -. 한국심리검사연구소.

김정택, 심혜숙(1990). 성격유형검사(MBTI)의 한국 표준화에 관한 일 연구. *상담과 심리치료*, 3(1), 44-72.

김지혜, 임승락, 임동수(2001). 성격유형과 직무스트레스. *신경정신의학*, 40(5), 813-823.

김희숙(2003). 간호대학생의 성격유형, 자아존중감 및 정신건강과의 관계. *정신간호학회지*, 12(4), 385-393.

나길운(1992). *교사의 성격유형과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박금숙, 유병철, 정귀원, 정수진, 김성준, 배기택, 손혜숙(2001). 임상간호사의 성격유형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인제의학*, 22(1), 171-172.

박기출(1996). MBTI를 활용한 진학지도 사례, *학생생활연구: 금오공대*, 5, 53-62.

박정희(2002). 간호대학생의 성격유형과 주장훈련이 주장행동, 갈등관리 양식에 미치는 영향. *지역사회간호학회지*, 13(3), 556-565.

양 수, 양남영, 차정희(2004). 간호사의 에니어그램 성격유형별 간호전문직 태도와 직무만족. *간호행정학회지*, 10(3), 299-310.

이경화(1999). MBTI와 KPDI에 의한 대학생의 전공별 성격특성 연구. *교육심리연구*, 13(1), 279-305.

임기영, 조선미(2002). 의과대학생의 전공 선택과 관련된 변인에 대한 연구. *한국의학교육*, 14(2), 269-286.

임지영, 유일영, 오순남(2001). 일 대학교 간호대학생의 성격유형과 입학성적 및 학업성취도의 관계. *대한간호학회지*, 31(5), 835-845.

최광수(2002). *MBTI로 보는 다양한 리더쉽*. 조이신 교회 출판부.

황승숙(2004). MBTI 기본 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와 집단응집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건간호학회지*, 18(1), 61-73.

황승숙, 김은주(2002). 간호대학생의 MBTI 성격유형과 방어기제의 관계연구. *대학간호학회지*, 32(4), 447-458.

Anchors WS, Robbins MA, & Gershman ES(1989). The relationship between Jungian type and persistence to graduation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Psychological Type*, 17, 20-25.

Ang M(2002). Advanced communication skills: conflict management and persuasion. *Academic Medicine*, 77(11), 1166.

Bitran M, Lafuente M, Zuniga D, Viviani P & Mena B(2004a). The influence of psychological features and learning styles on the academic performance

- of medical students. *Revista Medica de Chile*, 132(9), 1127-1136.
- Bitran M, Zuniga D, Lafuente M, Viviani P & Mena B(2004b). Psychological features and cognitive styles of students entering medicine and other careers at the Pontificia Universidad Catolica de Chile. *Revista Medica de Chile*, 132(7), 809-815..
- Bitran M, Zuniga D, Lafuente M, Viviani P & Mena B(2003). Psychological types and learning styles of students entering medical school at the Pontificia Universidad Catolica de Chile. *Revista Medica de Chile*, 131(9), 1067-1078.
- Blake G, Montgomery D, Walley E, Beebe D & Replogle W(1995). Residents' formal knowledge acquisition and preferred learning styles. *Family Medicine*, 27(1), 35-38.
- Boyd R & Brown T(2005). Pilot study of Myers Briggs Type Indicator personality profiling in emergency department senior medical staff. *Emergency Medicine Australasia*, 17(3), 200-203.
- Clack GB, Allen J, Cooper D & Head JO(2004). Personality differences between doctors and their patients: implications for the teaching of communication skills. *Medical Education*, 38(2), 177-186.
- Eicke FJ, Blake G & Replogle W(1993). A comparative view of the Myers-Briggs type indicator. *Family Medicine*, 25(3), 186-190.
- Erskine CG, Westerman GH & Grandy TG(1986). Personality styles of first-year dental students. *Journal of Dental Education*, 50(4), 221-224.
- Freud CM(1988). Decision-making styles: managerial application of the MBTI and type theory. *The Journal of Nursing Administration*, 18(12), 5-11.
- Grandy TG, Westerman GH, Ocanto RA & Erskine CG(1996). Predicting dentists' career choices using the Myers-Briggs type indicator. *Journal of the American Dental Association*, 127(2), 253-258.
- Harasym PH, Leong EJ, Lucier GE & Lorscheider FL(1996). Relationship between Myers-Briggs psychological traits and use of course objectives in anatomy and physiology. *Evaluation & the Health Professions*, 19(2), 243-252.
- Hardigan PC & Cohen SR(2003). A comparison of learning styles among seven health professions: Implications for optometric education. *The Internet Journal of Allied Health Sciences & Practice*, 1(1). (<http://ijahsp.nova.edu/articles/lvol1/HardiganCohen.html>)
- Lacorte MA & Risucci DA(1993). Personality, clinical performance and knowledge in paediatric residents. *Medical Education*, 27(2), 165-169.
- Makely S(2005). *Professionalism in Health Care: A Primer for Career Success*. 2nd Edition. Prentice Hall. pp.40-41.
- Molidor JB(2002). *Here's What I Think & Feel: Advising Medical Students On Their Career Planning*. Michigan State University College of Human Medicine-Flint Campus. (http://www.msu-fame.msu.edu/main_site/careerplanning/workbooks/advising/pdf)
- Myers IB, & McCaulley MH(1985). *Manual: A guide to the development and use of the Myers-Briggs Type Indicator (2nd ed.)*.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cal Press.
- Myers IB, & Myers PB(1980). *Gift differing*.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 Press.
- Opt SK & Loffredo DA(2003). Communicator image and Myers-Briggs Type Indicator extraversion-introversion. *The Journal of Psychology*, 137(6), 560-568.
- Shope TC, Frohna JG & Frohna AZ(2000). Using the Myerg-Briggs Type Indicator(MBTI) in the teaching of leadership skills. *Medical Education*, 34(11), 956.
- Sohn SY & Jo YK(2003). A study on the student pilot's mental workload due to personality types of both instructor and student. *Ergonomics*,

46(15), 1566-1577.

Stilwell NA, Wallick MM, Thal SE & Burleson JA(2000). Myers-Briggs type and medical speciality choice: a new look at an old question. *Teaching and Learning Medicine*, 12(1), 14-20.

Tharp GD(1992).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type and achievement in an undergraduate physiology course. *The American Journal of Physiology*, 262(6Pt3), S1-S3.

Wallick M, Cambre K & McClugage S(2000). Does the admissions committee select medical students in its own image? *The Journal of the Louisiana State Medical Society*, 152(8), 393-397

Wallick MM & Cambre KM(1999). Personality types in academic medicine. *The Journal of the Louisiana State Medical Society*, 151(7), 378-383.

Williams R(1975).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BTI and job satisfaction: a preliminary report. *The American Journal of Technology*, 41(2), 56-60.

http://www.capt.org/The_MBTI_Instrument/Isabel%20Myers.cfm

<http://www.gesher.org/Myers-Briggs/MBTI%20Chart%20and%20specialty.html>

<http://www.gsu.edu/~dschjb/wwwmbti.html>